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보 도 자 료	■ 국립중앙박물관 2020-16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이현주 Tel 02-2077-9226 prinspace@korea.kr
	■ 2020. 3. 6. 배포 ■ 불임: 온라인서비스목록 ■ 총 2쪽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박물관에 갈 수 없을 땐 어떻게 하지?’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개관

- 집에서도 전시관람, 교육프로그램 모두 즐겨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 이하 박물관)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휴관 기간중에도 온라인으로 박물관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박물관 누리집 (<http://museum.go.kr>)을 접속하면 초기화면에서 바로 VR과 동영상으로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얼마 전 종료된 ‘가야본성 칼과 현’ 특별전을 놓쳤다면 전시실의 모습 그대로 VR로 관람해 보자. 주요 유물을 선택하면 간단한 설명도 볼 수 있다.

동영상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다. 특별전시 ‘핀란드 디자인 10 000년’은 UCC로, 얼마 전 새로 단장한 세계문화관에서는 ‘이집트관’의 전시 준비과정과 전시내용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도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하면 ‘진로탐색 박물관 전문가’를 찾아보면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7Pc7sflxGNdgh-ep_jlbEg)

더불어 박물관은 네이버TV와 손잡고 ‘핀란드 디자인 10 000년’
‘세계문화관 이집트관’을 3월에 방송 할 예정이다. 전시를 준비한
학예사가 직접 전시를 소개할 예정이다.

박물관 온라인(SNS)에서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따뜻한 친구, 함께
하는 박물관’ ‘온라인으로 즐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글씨로
써보자. 응모하면 무선이어폰과 박물관의 문화상품이 내손 안에
들어온다.(응모 기간 2020.3.9.~18)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에서 즐기고,
석조유물정원은 개방하고 있으니 직접와서 관람해도 좋다.

붙임

1.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서비스
2.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보기
3.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진로탐색 영상 목록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이현주 홍보전문경력관
(02-2077-92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